

시인의 마음

반갑지 않은 것은 없다

멀리서 온 지인이 아니더라도 반갑지 않은 것은 없다 / 누구에게는 지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 혹자에게는 부모님이나 가족, 일가 친족일 수 있다 / 언제부터인가 정확하지는 않다 / 신척길에 줄줄 따라다니며 정신없이 돌아다닌 까치가 바로 그중의 하나이다

반가운 반갑지 않은 불편한 동거의 거그가 있다 / 거그 때문에 아침 운동이 불편해진 지 오래다 / 그래서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거그가 다가오는 것이 싫다 / 거그의 지저귀는 소리는 데사벨을 넘은 소울이 된 지 오래다 / 오늘은 마음을 먹었다 / 더 이상 트라우마로 발전하는 자기가 용서치 못한다 / 꼭, 거그에게 오늘날은 달아둔 이야기를 전달하려 했다 / 제발, 제발, 때를 가려 읽어달라고 간절하게 말이다 / 덕분에, 불편한 속마음을 한바탕 퍼붓고 싶었다

그런데, 사회적 지위(social position)라는 것 때문일까 /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걷기에만 집중해야 했다 /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혹여, 지나가던 강아지가 / 혹은 나, 귀가 열린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누군가 들을까 봐 / 조용조용 입안을 맴도는 목자가타리를 애써 보듬는다

입안에서 얼마나 맴돌고 맴돌았는지 모르나 / 그런데 웬걸 까치란 놈이 눈치도 없다 / 듣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머리 위를 이리저리 날갯짓하며 / 더 큰 소리로 각 각 소리의



박여범

웅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로 놀러대기 바쁘다 / 순간, 까치가 신성하다고, 좋은 소식만 전해준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 거리의 지저귀는 소리가 거그와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 / 서로 인정하기 어려워 목소리 내기에만 급급하다

저렇게 멍한 것이 까치라는 사실에 눈을 의심했다

-저고 새였지, 그럼 나도 새가 되어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 -아니지, 저고는 새, 나는 사람이다, 설마

의문에 의문이 커진다 / 답이 없다 / 미친 척 운동화 끈을 조여 매다가 거그와 눈이 마주쳤다 / 거그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닐까 / 그 순간 생각의 각에는 욕만 허려했던 초라한 그림자만 보인다 / 대화

가 필요한 이 시대에 눈과 귀를 막고 살아 온 나였다 / 까치처럼, 세대거리가 된 모양새다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이다 / 이처럼, 반갑지 않은 것이 없다 / 신척길에 돌아다녀 사람에게 복과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그 / 거그가 그림자기도 이렇헤기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다

새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 / 언제쯤 나의 어깨가 근질근질하며 날개가 솟아날까 / 생각해 생각을 더하고 고민에 고민을 더하여 자료를 찾아본다 / 고로, 내가 까치가 되어 거그의 언어를 배워야 할 것 같다 / 반갑지 않은 것은 없다 / 신척길에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까치란 거그처럼 말이다

-박여범, 반갑지 않은 것은 없다, 전문

(시구를 담다)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보낸 내게는 까치와 관련된 가물가물한 기억이 남아 있다. 그중에 하나는 친구들과 학교에 가던 중 만난 까치의 사체였다. 신성하 김조로 교육관과

온 나와 친구들은 까치의 사체를 거두었다. 그리고 경성 들어 햇빛 잘 드는 곳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무덤 앞에는 십자가를 세워두었다. 지나가는 깃대나 개구리, 잠자리, 메뚜기 등을 잡아 까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전하곤 했다. 돌아보면, 참으로 엉뚱하고 생뚱맞은 행동이었다. 그렇지만, 가을 만나는 친구들과

의 대화는 이 까치 무덤으로 인해 이런 사실로 돌아갈 수 있는 미소의 시간이 된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할머니 죽음과 까치에 대한 아버지의 원망은 아직도 생생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침이었다. 그날, 고향 집 대문에는 까치가 아닌 까마귀 한 마리가 짹 소리를 내치르고는 난하가 버렸다. 이 까마귀가 난하인지, 얼마나 되지 않아 등에서 부모님이 돌아오셨다. 그리고 황급한 아버지의 목소리에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까치의 까마귀는 이렇게 어린 시절의 나를 후련의 무대로 이끌었다.

이처럼, 까치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출근할 때마, 차에서 내리는 나를 향해 물어주는 까치가 반갑고 정겹다. 반면 그 누군가에게는 나를, 이 아들이야 할 소리가 소울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남긴다. 그런데도 나는 까치의 반가운 인사가 좋다.

오늘 나에게 다가온 인 양에는 좋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기억 속의 부모님처럼 까치는 좋은 일을 전해주는 내 친구로 기억하고 싶다. 오늘도 까치가 앞서 나아오리라. 그리면서 꼭, 귀를 연거꾸 내치른다. 나는 거그를 향해 손을 들어 고맙다고 인사를 전한다.

· 짹, 짹, 부강고 고맙다.

· 줄거운 하투 되거라.

· 그리고 또, 난하야.

· 입으로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사설

교사 채용비리 문제

전북 도내 일선 사립학교 교사 채용 문제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절차의 일부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학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9년 전주지검은 전주 지역 사립학교 교사 6명이 채용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돈을 건넨 사실을 적발했다. 비리 이사진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교사들은 교단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전북교육청이 도입한 것이 바로 교육청과 사립학교 공동 선발 전형이다.

도교육청이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해 선발 인원의 7배수를 학교 측에 보내면, 해당 학교가 실기나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

사립의 채용에 투명성을 높인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 측에 통보하는 인원이 7배수나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채용 결정권에는 거

의 영향을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때 시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사학들은 일부의 비리를 이유로 전체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으로 통제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전교조와 교사 노조는 환영하고 나섰다. 개정안을 계기로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학의 공정성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2차, 3차 그리고 실기나 면접을 가지고도 충분히 제단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채용에 교육 당국의 개입과 권한이 더 커지는 쪽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글라스 출시한 페이스북

스마트 안경을 낀 채 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전화를 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스마트 폰에 이어 스마트 안경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최근 선글라스 업체 레이벤(Ray-Ban)과 협업해 스마트글라스 '레이벤 스토리'를 출시했다. 스마트 글라스는 온라인과 미국·호주·캐나다·아일랜드·이탈리아·영국의 레이벤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도둑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마트글라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선글라스와 모양이 똑같다는 것이다. 500만 화소 카메라 2개, 마이크 3개가 탑재돼 있다. 안경다리 양쪽에 스피커가 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이 탑재됐고 저장 용량은 4GB다. 안경 오른쪽 다리에는 버튼이 있는데, 이를 누르면 짧은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 한번 찍을 때 30초만 가능하다. 길게 누르면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 스마트글라스는 음성 인식으로도 작동한다.

면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 스마트글라스는 음성 인식으로도 작동한다.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페이스북 뷰 앱을 통해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 틱톡 등에 업로드 할 수 있다.

안경 케이스도 일반 케이스가 아니다. 안경 케이스에 넣으면 무선 충전이 된다. 스마트글라스에 AR·VR(증강·가상현실) 기능은 없다.

스마트글라스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전면부에 아주 작은 흰색 LED가 들어오지만, 이를 눈치 채기가 쉽지 않다.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을 꿈꾸고 있다.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AR·VR 기술이 필요하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증강현실을 적용한 스마트글라스를 출시하는 것이다. 이는 페이스북이 진정한 메타버스 기업으로 가는 또 다른 단계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분출 시작한 하와이섬 킬라우에아 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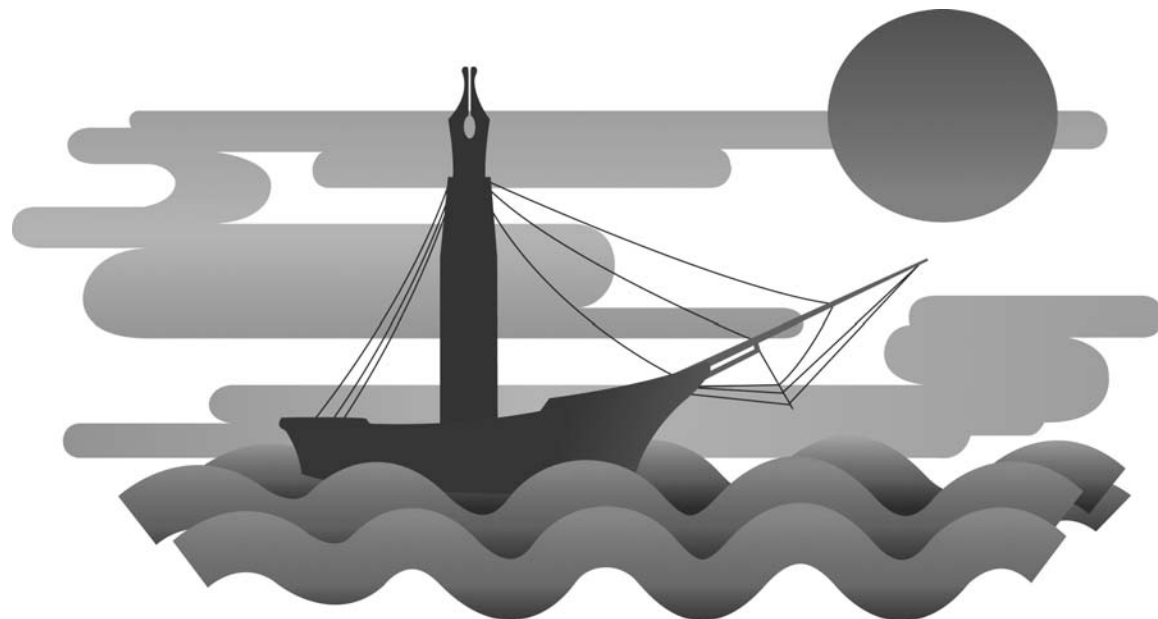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미국 지질조사국이 제공한 웹캠 이미지에 지난 29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주 하와이섬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의 할레마우마우 분화구가 분출을 시작하고 있다.

브리튼스피어스, 마침내 자유 얻어



브리튼스피어스 운동자들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스탠리 모스크 법원 밖에서 '프리 브리튼스'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LA 법원은 스피어스의 친부인 제이미 스피어스의 후견인 자격을 박탈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